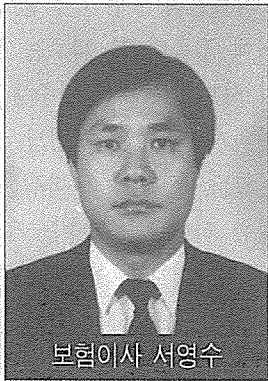


1998 치과계 전망

치주자율지도 개선 조치 실시



보험이사 서영수

치주희망회원은 모두 급여 치석제거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방 목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를 동시에 행할 수 있고, 보험자 측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비희망회원간에 치석 제거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없어야지라 생각...

IMF 한파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금년의 치과계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별도 안 올 정도의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이 이 한파에 밀려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되며 심사 또한 강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의보수가 인상보다는 치과의료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심사기준, 항목 준용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기준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차체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치주자율지도 개선의 실시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주희망회원은 모두 급여 치석제거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방 목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를 동시에 행할 수 있고, 보험자 측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비희망회원간에 치석제거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없어야지라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자측에 의해 강제 정지당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권리를 찾는 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자원기준 상대가치개발의 2차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연구를 토대로 표준의료행위의 문제점과 운용방안에 대한 보완 연구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또한 필요합니다. 개원가의 찬바람이 예상되지만 치과계의 단합된 힘만이 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